



살아있는 책을 만나다! ‘세계팝업아트展’ 5월 19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개최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세계팝업아트전이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주)아트센터이다가 주최하고 루이까또즈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3차원 시각예술인 팝업아트를 새로운 미술의 한 영역으로 규명하고, 팝업기법이 접목된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세계팝업아트展’에서는 널리 알려진 다양한 팝업북과 세계 컬렉터들의 희소 소장본 및 초판본, 한정본을 특별 전시하며 이 외에도 회화, 조형, 사진, 영상 등 총 4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이번 전시는 벤자 하니, 마틸드 니베 등 세계

적인 팝업아트 거장들이 에르메스, 샤넬, 루이까또즈 등 세계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콜라보레이션 작품들과

함께 북아트와 페이퍼엔지니어링이 접목된 세계 팝업북 및 북아티스트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페이퍼엔지니어링을 팝업아트로 승화시킨 벤자 하니가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대상의 토론 및 사인회를 실시하며, 브루스 포스터는 자신이 만든 해리포터 팝업북 만들기를 직접 지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소통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간 |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시내용** | 북, 드로잉, 회화, 조형,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설치 등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참여작가 | Robert Sabuda, Benja Harney, Bruce Foster, Philippe UG, Ingrid Siliakus, David A. Carter, Yu Jordy Fu, Lizzie Thomas, Mathilde Nivet, Thomas Allen, Paul Johnson, Mathilde Lemiesle, Peter Dahmen, Paul



팝업 뮤지엄 '희귀 희소 팝업북 전시'

팝업 뮤지엄에서는 13세기부터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팝업 700년의 역사와 팝업북의 대표적인 제작 기법을 설명한다. 또한 각 기법이 사용된 유명 팝업북과 작품을 소개해 '팝업'에 생소한 관람객들도 쉽게 팝업아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희소 소장본 및 초판본, 한정본을 특별 전시하며 19세기 팝업북이 대중화되기 이전의 팝업북 등 컬렉터들의 희소 소장본들을 전시한다.

움직이는 팝업북관 '책은 살아있다'

움직이는 팝업북관(3D Paper Pop Up Art. Books Alive!)에서는 펼치는 순간 3차원의 조형물이 되어 책의 스토리를 영화처럼 시각화하는 팝업북을 명작동화, 판타지, 호러 등 스토리가 있는 팝업북과 패턴디자인, 타이포그래피, 건축디자인 등 디자인을 소개하는 팝업북을 소개해 관람객을 고정된 시각, 정형화된 형태에서 무한한 영감의 세계로 안내한다.

디자인산업과 접목된 팝업

평면 일러스트나 디자인을 팝업 기술로 감동을 극대화한 3차원의 시각예술인 팝업아트가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웹디자

인, 광고 등 다양한 디자인 산업에 응용된 작품을 전시하며 세계 다양한 디자인 산업과의 접목을 소개한다. 특히 에르메스, 샤넬, 루이까또즈, 불가리 등 세계 명품브랜드가 세계적 팝업 작가 벤자 하니, 마틸드 니베와 협업해 만든 비주얼 텔런다이징, 팝업 프레스키트와 팝업 카탈로그가 특별 전시된다.

팝업 순수미술관 '팝업은 예술 작품 그 자체'

팝업 순수미술관에서는 팝업의 2D에서 3D으로의 극적 반전과 Theatricality, 스펙터클한 기교에 반발해 팝업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Paul Jackson의 작품 'Museum'을 비롯해 Ingrid Siljakus, Lizzie Thomas, Emma Van Leest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건축모형, 모빌 등 팝업을 디자인의 수단이 아닌 예술 작품 자체로서 인정받고 팝업을 순수 미술의 영역까지 확장시킨 작품들을 전시한다.

세계팝업아트전의 최소현 큐레이터는 "이번 세계팝업아트전은 기존 팝업북 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공예에서 디자인으로 그리고 순수 미술까지 미의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페이퍼엔지니어링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책속의 세상이 입체가 되어 책 밖의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팝업아트의 상쾌한 스타일을 즐겨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 디자인산업과 접목된 팝업북 Benja Harney의 KylieMinogue_TheGoddess Edition 2. Louis Giraud Children_s Annual 1929년 초판본
3. Thomas Allen의 unreachable 4. Robert Sabuda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5. Jan Pienkowski의 Haunted House 6. Norman Messenger의 Imagina전 7. Lizzie Thomas의 Hidden Spring